



국민의힘  
책자형선거공보

# 관악구의회

관악 골목을  
구석구석  
뛰겠습니다



관악구의원 다선거구 (청룡, 중앙, 성현, 청림)

# 양지후?가

# 후보자정보공개자료

관악구의회의원선거 (관악구 다선거구)

## 1. 인적사항

기호	소속정당명	후보자성명	성별	생년월일 (세)	직업	학력	경력
2가	국민의힘	양지후	남	1999. 7.17. (26세)	정당인	한국공학대학교 기계설계공학과 졸업	(전)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국민의힘 관악갑 사무실장
							(전)관악문화원 도서관 근무

## 2. 재산상황 및 병역사항

재 산 상 황 (천원)					병 역 사 항		
계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후보자	배우자	18세이상 직계비속
11,548	11,548	해당없음	부:고지거부 모:고지거부	해당없음	기타 (5급 전시 근로역)		

## 3. 세금 납부·체납실적 및 전과기록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천원)				후보자 전과기록
구분	납세액	체납내역		
		체납액 누계 (완납일자)	현 체납액	
계	0	0	0	해당 없음
후보자	0	0	0	
배우자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직계존속	부:신고거부, 모:신고거부			
직계비속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4. 소명서

--

# 관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학도의 머리로 작은 것까지 바꾸겠습니다



## 관악로박이

관악구 내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며  
무던하게 관악의 품에서 살아왔습니다.  
관악이 기른 아이가 관악을 위해 일하려 합니다.

## 관악전문가

관악문화원 도서관에서 4년 기간 동안 근무하고  
지역 주민을 만나고 다양한 생활민원을 처리하며  
민원처리능력을 다져왔습니다.

## 경험 '있는' 청년

도서관 근무 당시의 우연한 인연으로 시작하여  
2024년 국회의원선거를 위해 2023년도부터 발로 뛰며  
주민들과 만나고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웠습니다.

## 문제 해결형 메카닉 정치인

관악을 관악답게!

관악의 청년 문제, 주거 문제, 상권 문제는  
각각 분리된 문제가 아니라 서로 연결된 구조 속에 있습니다.  
포괄적인 정책이 아닌 세대별 맞춤형인 구조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단순한 주장이나 구호가 아니라,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설계하는 '메카닉형 정치'가 필요합니다.



관악을 골목골목 살피는 **양지후**

# 관악 토박이!

# 관악 출몰!

## 2가

## 무엇이 바뀌어야 할까요?

관악은 청년과 1인 가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하지만 생활은 여전히 불편합니다.

정책은 많지만 생활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 양지후가 바꾸겠습니다

### 1 주거

신속통합기획 확대  
모아타운 활성화  
용도상향, SOC 확보

### 2 교통

서부선 추진  
공영주차장 확대  
교통 민원 우선순위 관리

### 3 수변·녹지

도림천·봉천천 정비  
5분 내 녹지 확보

### 4 문화·예술

생활예술 동아리 지원  
수변 문화 공간 조성

### 5 생애주기

키즈카페·돌봄 확대  
청년 전월세 지원  
쓰레기 배출 방식 개선

### 6 장애인 복지

보호시설 확대  
프로그램 강화

### 7 반려동물

놀이터·예방접종 지원

### 8 소상공인

‘두잇’ 앱 이용 구조 개선  
상권 공동 마케팅 확대

### 9 청년

공공 학습공간 확대  
교재비·응시료 지원

# 양지후



## 우리 동네는 이렇게 바뀔니다!

- 청룡동 → 상권 + 생활환경 개선
- 중앙동 → 골목 안전 강화
- 성현동 → 주거 정비 + 주차 문제 해결
- 청림동 → 공원 + 생활 인프라 확대

### 성현동

- 모아타운 추진
- 공영주차장 확충 추진

### 청림동

- 녹지공간 확대 추진

### 중앙동

- 골목 조명 및 스마트 보안등 확충 추진
- CCTV사각지대 해소 및 생활안전 강화



### 청룡동

- 골목상권활성화 및 두잇 개선 추진
- 쓰레기 배출 관리구조 개선



## 관악에서 길러주신 은혜 발로 뛰며 갚겠습니다!

관악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 양지후 인사드립니다.

관악에서 태어나 초·중·고를 졸업하며 성장했고,  
관악문화원 도서관에서 시작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무실장까지,  
관악 구석구석 골목을 직접 발로 뛰어왔습니다.

청년 인구가 많은 이곳에서 저 역시 청년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더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관악이 ‘머무는 도시’가 아니라 ‘거처가는 도시’로 불린다는 현실을.

누군가는 제게 아직 젊어 경험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젊음은 부족함이 아니라  
더 많이 듣고,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답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세대별로 꼭 필요한 정책을 하겠습니다.  
청년에게는 기회를,  
중년에는 현실적인 해답을,  
어르신께는 따뜻함을 드리는 정책을 약속드립니다.

관악에서 받은 사랑, 그보다 더 크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왜 ‘발로 뛰는 청년’이 필요한지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양지후에게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 2가 양지후

1999년 관악 출생 · 신성초 / 신림중 / 남강고 졸업 · 한국공학대 기계설계공학과 졸업  
·전)관악문화원 도서관 근무 ·전)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국민의힘 관악갑 사무실장



**사전 투표 5/29(금)~30(토)**  
오전 6시~오후 6시까지  
**전국 사전투표소**



국군 장병 여러분, 경찰관, 소방관, 환경미화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양지후는 여러분의 노고를 잊지 않겠습니다.